

사회

나주시, 미래산단 조성 자금조달 의혹 투성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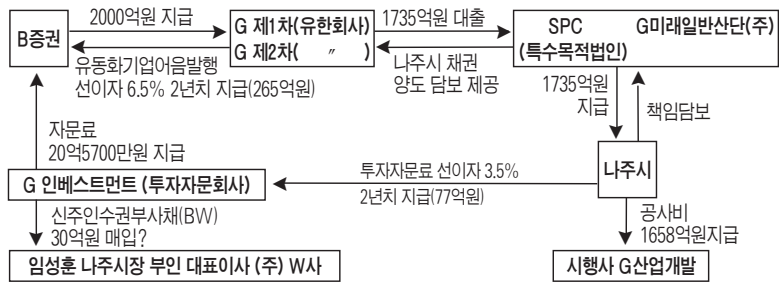
2000억 빌리면서 2년 이자 342억 先지급

나주시장 부인 회사채 매입 30억 사용 의혹도

나주시가 민간투자방식으로 조성 중인 나주미래산업단지(나주미래산단)의 자금조달 과정에서 은행...

나주시는 투자자문회사로 끼어든 G인베스트먼트에 금리 10% 이하로 자금을 빌릴 경우 그 차액을 주기로...

■나주 미래산단 자금 흐름도



265억원의 사용처에 대해 관계자 등을 불러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나주시는 분양 책임만 떠안고 이익은 모두 투자자들이 미리 챙긴 것으로 보인다"

지 않았으며, 투자자문회사, SPC 등과 맺은 투자이행협정도 대부분 나주시에 불리하게 작성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11일 광주지검과 나주시 등에 따르면 시는 B증권으로부터 2000억원의 나주미래산단 개발자금을 조달하면서 6.5%의 선이자 2년치 260억원...

검찰은 이 투자자문회사가 전남지역 다른 산업단지 조성과정에도 개입한 흔적을 포착하고 수사확대 여부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우위한 작은 음악회

11일 오후 5시 전남대병원 로비에서 송은규 전남대병원장·문운주 정형외과 원장·박일성 동아병원장 등 의사와 동호인으로 구성된 그룹사운드 에스콜라의 '현우들을 위한 작은 음악회'가 열렸다.

“고개 숙인 채 일하다 목 디스크 업무상 재해”

기아차 생산직 직원

반복적으로 고개를 숙인 채 일하다가 목 디스크 진단을 받은 기아자동차 직원이 소송 끝에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광주지법 행정부(김재영 부장판사)는 11일 기아차 직원 최모(50)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최초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는 검차반에 배치된 2004년 말부터 고개를 숙이거나 젖히는 자세가 필요한 작업을 반복하고 무거운 타이어와 차량용 배터리를 꺼내고 실는 작업을 해왔다”며 “최씨의 질병은 작업 과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드 가공(5년 5개월) 등 업무를 거친 뒤 2004년 12월 검차반에 배치돼 작업 포함, 하루 평균 10시간 이상 일했다. 최씨는 차량 운전석 핸들 밑으로 고개를 밀어 넣어 브레이크 센서 등 부품들을 점검하고 고개를 뒤로 젖혀 뒷문을 살펴보는 일 등을 하다가 지난 해 8월 디스크 수술을 받고 다음달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신청을 했으나 승인되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다.

완도항 침몰 모터보트 수일째 ‘등등’

기름유출·2차 사고 우려

완도항 여객선 터미널에서 침몰한 소형 모터보트(사진)가 수일째 방치돼 있지만 관련 기관의 처리가 늦어져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또 최근 산업 쓰레기가 밀려와 잔뜩 쌓여 있지만 이에 대한 처리마저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다.

한 주민은 “매일 수많은 관광객이 완도여객터미널을 찾고 있는데, 이 모습을 보고 자칫 완도 해역 전체가 산업 쓰레기와 침몰 어선으로 뒤덮였다고 생각할까봐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경 관계자는 “배가 경매 처분중이어서 수협과 상해 보트 주인을 수소문중이다”며 “하지만 배 이름이 지워져 있고, 어선표시판도 물에 잠겨 있어 보트 주인 파악이 힘든 상태”라고 밝혔다.



나원침 (8709) 김중두



대선 벽보 불태운 20대 검거

광주남부경찰은 11일 대통령선거 입후보자들의 벽보를 훼손한 A(26)씨 등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일 새벽 3시에 광주시 남구 봉선동 한 아파트 철제물타리에 부착된 제18대 대통령선거 입후보자 선거벽보를 불로 태워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술에 취해 귀가하던 중에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계획적 범행 여부 등을 조사중이다.

초등학교 동창 지갑 훔쳤다 덤미

초등학교 동창의 지갑을 훔쳐다가 자신의 얼굴을 알아본 피해자에게 불잡힌 10대가 경찰서로 향했다.

광주서부경찰은 지난 10일 오후 5시45분께 광주시 서구 쌍촌동 한 노래방에서 A(15)양의 지갑을 훔쳐간 주모(15)군을 절도혐의로 불잡았다는 것.

경찰에 따르면 A양이 노래방 CCTV를 확인한 결과 용의자가 초등학교 동창임을 확인했고, 주군은 경찰에서 범행사실을 인정한 후 A양과 합의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광주시향 단원 근평 불공정 1인당 10만원 지급하라”

광주지법 원고 승소 판결

법원이 광주시립교향악단(광주시향)의 단원에 대한 근무평정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했다.

광주지법 민사 25단독 김진환 판사는 11일 광주시향 단원 15명이 광주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광주시는 단원들에게 1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단원들을 상대로 한 근무평정이 불공정하다는 원고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향은 지난해 말 정기평정에서 단원 16명에게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이 가운데 현악 주자 1명은 사퇴했으며 나머지 15명은 재평정을 거부하고 소송을 냈다.

취임한 독일 출신 상임지휘자 크리스티안 루트비히의 운영방식과 관련, 성명을 내는 등 마찰을 빚고 있다.

광주시는 최근 루트비히를 2년간 연임하도록 했으며, 단원들은 소송결과를 근거로 이날 광주시를 향의방문해 연인 철회를 촉구했다.

광주시향은 지난해 말 상임지휘자 루트비히와 외지 전문가 3명 등 4명이 참여한 정기 평정에 85명의 단원 가운데 16명에게 부적격 판정을 내려 논란이 일었다. 부적격 판정을 받은 단원들은 4명의 심사위원이 독립적으로 ‘적격’ ‘부적격’을 판정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합의제’로 판정을 한 점 등이 문제가 있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Canon advertisement for a festival featuring cameras like EOS 60D, EOS 650D, EOS M, and PowerShot G1X, G15, S110, SX50 HS, SX500 IS.

Advertisement for a course on preventing school violence, including details on dates, fee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Kwangshin University and the National Institute for Child Abuse and Neglect.